

한우자조금

www.hanwooboard.or.kr

2016년 7월 소식

기획

번식우·송아지 관리를 위한 열 가지 제안

자조금 소식

한우 왜곡 보도, JTBC 항의 방문

뉴스 클리핑

6월 한우 관련 이슈

행복은 원하는 것을
연누게 아니라,
이미 가진 것을
깨닫는
것이다





한우자조금

www.hanwooboard.or.kr

2016년 7월 소식

기획

자조금 소식

04 번식우·송아지 관리를 위한 제안

06 한우산업 발전 간담회 개최

07 한우 왜곡 보도, JTBC 항의 방문

08 유통이윤 줄이고, 한우고기값 낮추고

09 소비자와 함께하는 할인 대축제

10 가족과 즐기는 한우 캠핑 축제

11 홍콩·마카오 진출 위한 요리 시연회

12 '술선수범' 다짐, 한우지도자대회

13 한우 우수성 알리는 포스터 제작 외

14 드라마와 라디오 방송 속 한우

16 생산기술 개발 연구 결과 발표 외

한우 이모저모

17 부정청탁금지법 관련 토론회

18 한우의 행동과 이상행동

농장 탐방

20 전남 화순 둥이네농장의 김은주 대표

한우 시황

22 7월 한우 도매가격 전망

뉴스 클리핑

24 6월 한우 관련 이슈

포토 뉴스

26 평화로운 점심시간

함께하는 한우자조금

2016. 7 통권 제129호

비매물

발행일 2016년 7월 1일 발행인 이근수 발행처 한우자조금관리위원회 등록번호 서초 라1164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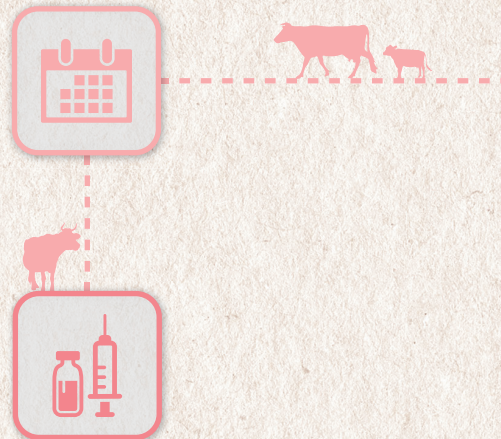
주소 서울시 서초구 서리풀 3길 20-1(서초동) 커피아화관 2층 홍보마케팅부 전화 02-522-3608 팩스 02-522-4314

기획·편집·인쇄 하나로애드컴 (02-3443-8005)

※본지는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의 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하며 기사와 사진 등은 무단으로 복제할 수 없습니다.

번식우·송아지 관리를 위한 열 가지 제안 💡

지난해부터 송아지값이 오르면서 번식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어떻게 하면 송아지의 폐사율을 낮추고, 건강한 송아지를 잘 생산할 수 있는지 궁금해 하는 농가들이 많을 것이다. 한우 번식우 140여두를 사육하고 있으며, 한우육종농가로도 선정된 경북 문경의 백상농장 김경숙 대표를 만났다.



백상농장 김경숙 대표는 연간 120여 마리의 송아지를 생산하고 있으며, 평균 산차가 6산 정도 된다. 다산우의 경우 11산을 한 번식우에서 태어난 송아지도 건강하게 잘 자라고 있다.

김 대표는 “번식우를 잘 사육하는 것은 말처럼 쉽지 않다”고 말한다. 특히 번식우가 50두 이상일 경우, 번식 성적을 잘 나오게 하는 것이 더욱 어렵다. 그렇다고 번식에 대해 겁을 먹을 것까지는 없다. 김 대표는 “소와 송아지에 대한 관심과 정성이 있다면 소들을 건강하게 사육할 수 있다”고 말한다. 김 대표에게 ‘번식우와 송아지 관리법’ 노하우 열 가지를 들어봤다.

1. 번식우의 발정을 조기에 발견할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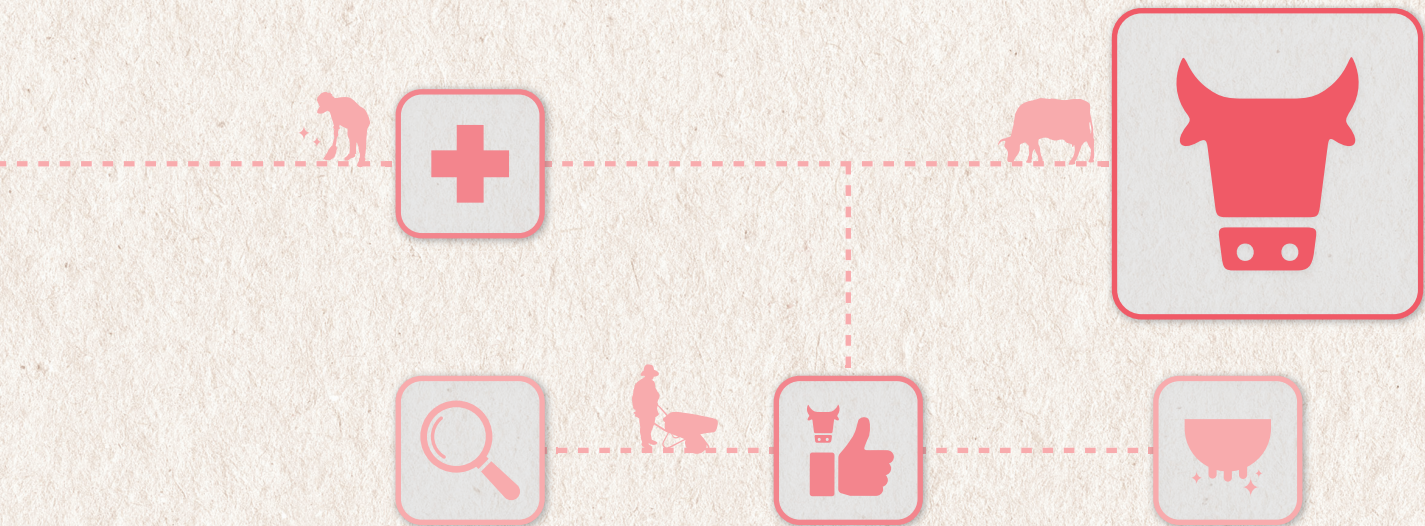
암소의 발정을 조기에 발견해야 수정 적기를 알 수 있다. 수정 적기를 정확히 파악하면 수태율을 높일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암소의 승가행동이나 울음소리, 불안증상 등을 세심하게 관찰해야 한다. 우사에 CCTV를 설치하면 발정을 조기에 발견하는 데 도움이 된다.

2. 송아지의 호흡기 질병과 설사 증상 주의

가장 중요한 것은 질병의 예방이다. 발병했다라도 조기에 발견해 치료를 해주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송아지가 태어나면 초유를 먹여 면역을 높여주고 자체온증이나 설사 시 탈수현상을 막아줘야 한다.

3. 송아지 분만을 도울 것

어미소가 건강할 경우 송아지를 잘 분만하지만, 초산이거나 송아지가 크면 난산이 될 수 있다. 분만 시간이 길어지면 농가가 직접 분만을 돕는 것이 좋다. 송아지 머리가 빠져나오지 못한다면 앞발목을 끈으로 묶고 진통에 맞춰 서서히 잡아당겨 준다. 어미소가 태어난 송아지를 돌보지 않을 경우, 어미소의 젖에 송아지 입을 갖다대어 어미소가 돌보도록 해줘야 한다.



4. 어미소의 유방과 유두 세척 및 소독

갓 태어난 송아지의 위는 멸균상태로, 어미소의 젖꼭지가 오염돼 있을 경우 설사의 원인이 된다. 따라서 어미소의 유방을 물수건 등으로 잘 닦아주고, 베타딘 용액 등으로 소독을 해 준 후 젖을 먹이는 것이 좋다. 태어난 송아지의 배꼽을 소독해 주면 설사 예방에 도움이 된다.

5. 태어난 송아지의 증세에 따라 응급조치할 것

송아지가 호흡을 어려워할 경우에도 손길이 필요하다. 우선 입 주변의 양수를 제거해주고, 뒷다리를 들어 몸이 거꾸로 되도록 해주거나 콧구멍에 벚짖 등을 넣어 재채기를 유도한다. 송아지의 양다리 위에 머리가 놓이도록 하고 등을 손으로 눌러 호흡을 유도한다.

6. 능력이 우수한 번식우를 선택

송아지를 잘 낳을 수 있는 번식우 개체를 선택해야 한다. 후대 성적과 앞으로의 개량을 신경 쓰는 농가라면 DNA 분석을 통한 정확한 친자 확인이 필요하다.

7. 철저한 번식우 사육관리

번식우는 특히 육성기 때 양질의 조사료를 충분히 급여해 줘야 한다. 특히 첫 발정이 오더라도 육성우의 체성숙과

번식기가 충분히 성숙된 이후인 13~14개월령, 체중이 300kg 이상일 때 수정하는 것이 좋다.

8. 번식우가 다두일 경우 계절번식이 효율적

번식하기에 적합한 날씨는 봄이나 가을이다. 계절번식은 이 시기에 송아지를 낳을 수 있도록 발정 동기화를 통해 번식우에 한꺼번에 수정하는 방법이다. 계절번식을 해놓으면 한 달 사이에 발정을 체크할 수 있어 훨씬 수월하다. 또한, 낮에 분만하도록 유도하는 방법도 있다.

9. 구충과 백신 접종은 필수 사항

어미소가 건강해야 송아지를 잘 낳고 잘 기를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봄과 가을에 구충을 실시하고, 유산의 원인이 되는 아까바네나 이바라기병 등 각종 질병에 대한 백신을 접종하는 것이 좋다.

10. 번식우 사육이 적성에 맞는지 확인할 것

요즘처럼 송아지 값이 높을 땐 비육을 하던 농가들도 번식을 해볼까 생각하게 된다. 하지만 선불리 번식우 사육을 했다가 후회를 하는 경우가 많다. 번식우 관리가 상당히 까다롭기 때문. 수정이 잘 안 되거나 송아지가 폐사하는 경우가 빈번하다. 🐮

한우협회, 축협 조합장 한우산업 발전 간담회 개최

상호 존중하며 함께 한우산업 이끌어야

한우협회와 지역축협이 상호 존중하며 힘을 모아 한우산업 발전을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지난 3일 한우협회는 대전 유성 리베라호텔에서 협회 임원과 한우협회 출신 축협 조합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한우자조금사업의 일환인 한우산업 발전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는 한우협회와 지역축협이 서로를 불신하는 인식을 바꾸고 한우산업 발전을 위해 함께 노력해 나가자는 데 의견을 모으기 위해서이다.

한우협회 김홍길 회장은 “오늘 이 자리는 협회와 축협이 함께 만나 업계의 현안을 논의하는 첫 자리로, 그 의미가 깊다”며 “앞으로도 이런 자리를 자주 만들어 한우산업 발전을 위해 함께 나아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충주축협 이석재 조합장 역시 “한우협회와 축협이 합심해 노력하면 한우농가가 감소하는 것을 막을 수 있다”고 말했다.

거창축협 최창열 조합장도 “축협도 농가가 돈을 내서 만든 엄연한 생산자 단체인데, 최근 서로에 대한 존중이 부족했던 것이 사실이다. 앞으로는 각종 현안 해결을 위해 함께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우협회 경북도지회 문형재 지회장은 “한우협회와 축협이 갈등을 빚고 있다는 것이 안타깝다. 앞으로는 서로 믿고 힘을 모아 한우산업 발전을 위해 노력하면 좋겠다”고 말했다.

울산축협 전상철 조합장은 “협동조합법 개정을 통해 2000년도 농축협 통합 당시에 만든 특례조항을 삭제하려고 하는데, 이는 축협 조합장들의 의견을 무시하는 처사다. 축산경제 특례조항이 존치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달라”고 말했다.

또한 이날 간담회에서 한우협회 관계자는 “도지회와 시군지부의 활성화를 위해 한우자조금에서 3,000원을 협회비로 납부하도록 추진하고 있는 데 대해 축협 조합장들도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잘못된 방송 내용, 농가 생존권 위협”

한우협회·한우자조금, 한우 왜곡 보도 JTBC 항의 방문

지난 6월 15일 JTBC에서 방송된 뉴스룸의 ‘탐사 플러스’ 한우 등급제 관련 보도에 대해 전국한우협회와 한우자조금이 17일 JTBC를 항의방문했다.

이들은 ‘한우사육의 일부분을 다룬 부정적 보도가 한우에 대한 소비자의 불신을 일으키고 있다’는 점에 대해 강력히 항의하고, 이에 대해 정정 요구서를 제출했다.

한우협회 김홍길 회장은 “지극히 일부의 문제를 대대적인 것으로 보도해 소비자들이 한우산업 전체를 오해하고 있다. 이에 대한 책임은 어떻게 질 것인가.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라”고 강력히 촉구했다.

한우자조금 이근수 위원장은 “지난 5년간 농가 50%가 없어졌다. 이런 상황에서도 한우농가들이 열심히 노력해 홍콩에 1+, 1++의 한우고기를 수출했고, 화우보다 비싼 가격에 팔고 있다. 세계에서 인정하는 한우고기를 왜 우리나라에서만 박대하느냐”고 항의했다.

JTBC는 “이번 보도는 소고기 등급제의 잘못된 부분을 부각시키기 위해, 현재 사육환경의 부작용을 강조하려는 뜻이었으며, 결코 한우농가나 한우협회를 비판하기 위해 만든 것이 아니었다”고 답변했다.

이에 대해 한우협회 측은 정정요구서를 제출하며 “등급제를 비판하려했다고 하지만, 결국 한우산업을 흔들었다”며 반발했다. 또한



“왜곡된 보도 인터뷰에 대한 악의적 편집 등에 대해 후속조치 방안을 마련하고, 한우농가의 명예 회복과 소비자의 오해를 푸는 데 집중해 달라”고 요구했다.

김홍길 회장은 장시간의 항의 끝에 손석희 사장과의 면담을 요구했으며, 6월 20일까지 이번 보도에 대한 후속보도를 촉구했다. 한우협회는 “한우에 대한 안 좋은 이미지가 굳어지면 선량한 한우농가들의 생존을 위협할 것이다. 요구사항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전국의 한우농가가 집회를 가질 예정”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지난 6월 21일 항의 재방문에서 JTBC는 “회사 차원에서 인터뷰 대상자들의 불만해소와 후속조치에 대해 검토하고, 요구사항을 최대한 반영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

유통이윤 줄이고, 한우고기값 낮추고

한육우수급위, “조기출하 유도보다 할인행사 진행이 효과적”



한육우수급위협의회는 지난 2일 서울 서초구 제2축산회관에서 협의회를 갖고 한우고기 수급 안정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한우고기 가격을 높이는 원인 중 하나가 높은 유통이윤이라고 분석돼, 높은 가격을 부담스러워하는 소비자들을 위해 유통이윤을 줄여 할인판매를 하기로 했다.

최근 농림축산식품부가 발표한 ‘한우값 상승세를 막기 위한 출하물량 증대 방법’, 즉 ‘30개월 미만의 거세우를 조기출하하면 한 마리당 10만원의 출하 장려금을 한우자조금에서 지원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이미 부정적인 의견이 많다. ‘30개월령 미만의 소를 출하할 경우, 등급이 낮게 나오는 경우가 많다. 조기출하하는 농가는 거의 없을 것’이라는 주장이다. ‘조기출하로 인한 품질 저하도 우려된다’는 목소리도 들렸다. ‘당장 출하 물량이 부족하다고 지원금을 주며 출하 월령을 앞당길 경우, 성수기인 추석과 내년 설 명절에는 출하 물량이 더욱 부족할 수

있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조기출하를 유도하기보다는 유통이윤을 낮출 수 있도록 유통업체를 지원해 할인판매를 진행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는 것이다.

또한, ‘한우 수급 안정을 위해 중장기적으로 암소의 송아지 생산율을 현행 61%에서 65%까지 향상시키는 노력이 필요하다’며 책임수정제 확대 등의 방안이 제시됐다. 정부에서도 ‘번식우 송아지 생산기반 강화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와 함께 한우의 수출 확대를 위해 수출물류비 지원과 홍보비 예산을 1억 원에서 4억 원으로 증액하는 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

한우농가와 소비자가 함께하는 할인 대축제

6.24~7.3 한우 불고기, 국거리 30~40% 할인 가격에 판매



2

한우자조금과 한우협회, 농협중앙회, 소비자단체가 공동으로 '한우농가와 소비자가 함께하는 할인 대축제'를 열었다. 지난 6월 24일부터 7월 3일까지 농축협, 한우협



회 영농조합법인 등 생산자 단체가 운영하는 한우판매장에서 개최했다. 지난 6월 2일, 한우육수급조절협의회에서는 한우 가격 상승으로 한우 구매에 부담을 느끼는 소비자를 위해 할인 행사를 실시하는 것에 의견이 일치된 바 있었다.

농축협 199개소, 영농조합법인 9개소, 한우 114몰 7개소가 소비자들의 성원에 보답하기 위해 참여하는 이번 할인행사는 판매행사 기간 동안 1등급 이상의 한우 불고기와 국거리(100g 기준)를 정상이 대비 30~40% 할인된 가격인 4,500원(1++등급), 4,000원(1+등급), 3,500원(1등급)에 제공했다.

할인행사에 소요되는 비용은 한우농가들이 거출한 자조금으로 일부 지원하고, 영농조합법인과 농축협 판매장이 유통비용 절감을 통해 분담하기로 했다.

한우자조금 이근수 위원장은 "이번 행사를 통해 소비자들이 부담을 줄일 수 있으면 좋겠다. 한우농가들도 한우가격이 높아지는 것만 선호하는 것은 아니며, 빠른 시일 내에 가격이 안정돼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수준이 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1 한우협회 김홍길 회장이 농식품부 기자실에서 농축협 등 생산자 단체가 운영하는 한우판매장에서 '한우고기 소비자 가격 할인행사'를 진행한다고 발표하고 있다

2 이번 할인행사에 참여한 농협 하나로클럽 양재점. 많은 언론사들로부터 카메라 세례를 받고 있다



가족과 즐기는 한우 캠핑 축제

지역 어르신 초대, 한우 나눔 국밥 제공

6월 17일부터 19일까지 경기도 양평 수목원 오토 캠핑장에서 '2016년 한우 캠핑 페스티벌'이 개최됐다.

이번 한우 캠핑 페스티벌을 주최한 한우자조금은 한우114 홈페이지 (www.hanwoo114.co.kr) 등을 통해 '우리 가족이 한우 캠핑 페스티벌에 꼭 참여해야 하는 이유'로 참가신청 사연을 받았으며, 1,580팀이 넘는 가족 중 추첨을 통해 100팀을 선발했다.

이번 행사는 가족이 함께 소중한 추억을 만들 수 있는 프로그램들로 준비됐다. 참가한 팀에게는 2박 동안 캠핑시설 무료 제공을 비롯해 한우구이세트와 한우사골곰탕 팩으로 구성된 '웰컴 패키지'를 제공했다. 또한 한우 문패 만들기, 가족 장기자랑, 코펠조립 스피드 킹 이벤트, 가족 명랑운동회, 숲 속 콘서트, 한우 부채 만들기 체험 등 온 가족이 캠핑의 즐거움을 만끽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온 가족이 상시로 즐길 수 있는 워터 슬라이드 에어풀장과 페달 보트도 어린이들로부터 큰 인기를 끌었다.

특히, 캠핑 참가 가족들과 함께 가마솥으로 요리해 양평 지역 어르신 약 50여 명에게 대접한 '사랑의 한우국밥 나눔행사'가 캠핑 페스티벌 참가 가족들에게 좋은 반응을 얻었다.

한우자조금 서정훈 부장은 "세 번째 열리는 한우 캠핑 페스티벌로, 캠핑의 주체이자 가족의 중심이 되는 아빠를 주 타깃으로 삼았다. 한우와 함께 가족들과의 추억을 만들 수 있도록 구성해 뜨거운 호응을 얻었다"며 "내년에는 더욱 많은 호응과 참여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홍콩·마카오 한우 수입 관계자, 한우 맛보다

현지 유통 바이어, 호텔 셰프, 방송 관계자 등 초대

지난 5월 26일, 한우자조금과 한우협회가 강남구 청담동 소재의 한식레스토랑 청미심에서 홍콩 육류 구매 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한우 요리 시연회를 개최했다.

이번 한우 요리 시연회는 한우 홍콩 수출 확대 및 한우 브랜드 홍보를 위해 마련됐으며, 홍콩의 축산물 대형 수입·유통업체인 엘리트(Elite)사 및 시티슈퍼(City Super) 바이어, 홍콩·마카오 호텔 레스토랑 셰프 등이 함께 다양한 한우 요리법 등을 배웠다.

특히, 취재를 위해 함께 방문한 홍콩 방송 매체 TVB팀은 우리나라의 한우 요리와 식문화 등을 소개할 예정이다.

요리 시연은 벽제외식산업개발 소속 조영현, 이종현 셰프가 맡아 1, 2부로 진행했다. 1부에서는 조영현 셰프가 한우 등심, 안심, 갈비를 이용한 한우 손질법, 육회 무침법을

선보였으며, 이어서 2부에서는 이종현 셰프가 한우를 이용한 한식 요리인 한우 떡갈비, 육전을 선보이며 홍콩 바이어들의 입맛을 사로잡았다. 음식을 시식한 홍콩 바이어들은 “맛있다”, “very nice!”, “최고다”, “amazing 한우”라며 감탄을 연발했다.

홍콩 바이어팀들은 23일부터 27일까지 우리나라의 한우사육 및 도축, 가공 현장 등을 견학했다. 하동군과 하동축협 등이 공동으로 홍콩 육류 구매 담당자를 비롯한 관계자 14명을 초청한 것이다.

홍콩의 축산물 대형 수입·유통업체인 엘리트(Elite)사 존 경 대표는 “한우를 더욱 잘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이었다”고 감사의 뜻을 전했으며, 시티슈퍼(City Super) 바이어 마크는 “한우고기에 이렇게 다양한 요리법이 있는 줄 몰랐다. 홍콩에 돌아가 잘 적용시켜 보겠다”고 말했다.

이번 행사를 주최한 한우자조금 이근수 위원장은 “한우가 안정성과 맛을 인정받아 홍콩과 마카오에 수출되고 있다. 이번 시연회를 통해 싱가포르, 태국, 베트남 나아가 대만, 중국까지 한우 수출을 확대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12월 전남, 전북산 한우가 홍콩에 첫 수출한 데 이어 제주 ‘보들걸’과 경남 하동 ‘솔잎한우’가 월 3~5톤 단위로 수출될 예정이다. 

한우지도자들, 10만 한우인 위한 ‘술선수범’ 다짐

한우자조금과 한우협회가 지난 6월 23일 천안 소재 국학원에서 한우 지도자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지도자대회는 한우자조금 대의원과 한우협회 대의원 등 한우산업 지도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급변하는 한우산업 속에서 한우산업이 앞으로 나아갈 바를 모색하는 자리였다. 이날 한우자조금 이근수 위원장은 “최근 한우가격이 오르자 소비자들 사이에서 한우고기가 비싸다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다. 한우자조금에서는 한우 가격을 유지하고 한우산업을 안정시키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우협회 김홍길 회장도 “김영란법과 대기업 축산 진출 등 여러 현안이 한우산업을 막막하게 하고 있지만, 지도자들이 먼저 술선수범해 10만 한우인을 이끌어나간다면 희망이 있다”며 지도자가 구심점이 돼 줄 것을 당부했다.

이어 한우산업 발전 및 협회 활동 유공자에 대한 시상에서는 장수군 지부 육관수 지부장, 전 한우자조금 강성기 관리위원장, 전 한우협회

변이덕 이사가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상을 수상했다. 또 경상대학교 주순태 교수, 전 우영기 감사에게는 공로패가, 영월한우영농조합에는 ‘아름다운 공로패’와 함께 3천만 원의 상금(한우자조금)이 전달됐으며, 서울시청 윤민 전문관에게는 감사패가 수여됐다.

한우협회는 지도자대회를 통해 대정부 건의문을 채택하고, 건의문에 김영란법 국내산 농·축·수산물 제외, 대기업 축산 진입금지 조치 등을 촉구했다. 이어진 정책설명회에서는 조재성 사무관이 축산정책을, 안규정 서기관이 무허가 축사 적법화를 주제로 강의를 진행했으며, 한우협회와 한우자조금의 사업 보고가 진행됐다. 📰



한우협회·한우자조금 도사무국장 및 실장 회의

6월 1일에는 한우협회 도지회 사무국장 간담회를 개최했다.

한우협회 도사무국장과 실장, 한우자조금, 한우협회 중앙회 관계자들이 참석한 자리에서는 한우자조금과 한우협회의 운용현황 및 사업계획, 국고보조금 집행내역 작성요령 교육, 한우산업 발전 방향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한우협회 황엽 전무는 “두수별로 3천 원 거출한다는 것이 큰 금액이라고 느껴질 수 있지만 충성도가 낮은 편이다. 전 회원화를 위해 협회가 무엇을 하고 있고, 향후 어떤 일을 하고자 하는지 등 활동사항을 정리해 홍보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한우자조금 이근수 위원장은 “한우 가격이 낮아지면 소비자의 소비가 늘어나고, 반대로 가격이 높아지면 소비가 위축되는 것은 당연하다. 소값이 안정적으로 유지되기 위해서는 값이 비싸도 한우를 먹어야 하는 당위성을 부각해야 한다”는 의견을 전했다. 🐮



한우 알리는 포스터 제작

한우의 우수성을 알리는 포스터가 제작됐다. 총 2종으로, 주제는 ‘또 하나의 한류’와 ‘11월 1일은 대한민국이 한우먹는 날’이다. 각각의 포스터는 한우가 세계로 뻗어나가고 있다는 메시지와, 한우먹는 날인 11월 1일에 사랑과 감사, 응원의 마음을 한우로 전하라는 메시지를 담고 있다. 포스터에는 2016 한우 홍보대사 지진희가 모델로 등장해 사람들의 관심을 집중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각 2종의 포스터는 각 25,000부씩 제작됐으며, 축산기업중앙회 지부, 전국한우협회 도지회, 우리한우판매점, 한우협동조합연합, 한우전문점에 배포될 예정이다.

또한 ‘또 하나의 한류’ 포스터는 와이드 조명 광고용으로 제작돼 지난 6월 2일부터 남부터미널역에 게시되고 있다. 🐮

드라마와 라디오 방송 속 한우 보고 듣고 함께 이야기 나눠요



컬투와 함께, 한우와 함께

지난 6월 13일에는 본격적인 한우 수출을 기념한 한우 특집 공개방송이 진행됐다. 서울 마포구 상암동 SBS프리즘타워에서 꾸며진 라디오 프로그램 'SBS 파워FM 두시탈출 컬투쇼-아이 러브 소 머치'다. 이날 공개방송에는 컬투쇼 애청자 약 8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백아연, EXID, 트와이스 등 다양한 가수들이 출연했다. 출연진들은 각자 좋아하는 한우 부위와 한우 섭취법 등 한우에 관련된 이야기를 이어나갔다. 또한 컬투와 한우를 모티브로 한 포토월이 마련돼 방청객들의 관심을 끌기도 했다. 녹화된 공개방송은 지난 19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라디오 방송됐으며, 한우가 소비자들과 더욱 가깝게 소통하는 기회가 됐을 것으로 예상된다.



갱년기 여성의 여름철 원기회복에는 한우가 최고

지난 5월 30일, SBS <좋은 아침>에서는 가정의 달을 맞아해 가족 건강에 좋은 한우고기 요리법이 방영됐다. 토니오 셰프가 만든 ‘오미자 한우 스테이크’는 여성호르몬과 비슷한 리그난 성분이 들어 있는 오미자와, 철분이 풍부한 한우가 더해져 근력이 약한 갱년기 여성에게 좋은 요리다. 요리 과정에서 고기 조리법을 공유하기도 했다. 토니오 셰프는 “마트에서 구매하는 소고기의 핏물을 제거해야 한다. 키친타올이나 형겅에 올려 감싼 다음, 15분만 빼면 냄새 없는 고기를 먹을 수 있다”고 전했다.

최승경, 임채원 부부가 나들이에서 점심으로 선택한 메뉴 역시 한우 구이다. 한우농가들과 직거래로 운영하고 있는 한우 직판장에 들른 최승경 부부가 저렴한 가격으로 한우를 섭취하는 모습이 등장했다.

6월 14일에는 5월 30일과는 다른 한우고기 요리법이 방송됐다. 한우의 다양한 부위를 이용해 여름철 건강에 좋은 한우요리를 만든 것. 안심을 이용한 ‘굴소스 한우 브로콜리’와, 우둔살을 이용한 ‘육회 비빔국수’가 그 주인공이다. 양질의 단백질과 필수 아미노산이 함유된 한우고기 요리법을 전달해 소비 촉진에 기여한 것으로 보인다.



명의 허준부터 외국인까지 사로잡는다

SBS 드라마 <내 사위의 여자>에서는 한우 떡갈비 도시락이 등장했다. 등장인물들은 “한우 도시락 먹고 기운 내”라는 대화를 통해 한우의 영양적인 면을 부각시키며, 여름철 원기회복에 도움이 되는 식품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JTBC 드라마 <마녀보감>에서 역시 한우고기를 건강식품으로 섭취했다. 등장인물이 주인공 허준에게 한우를 대접하며 “큰마음먹고 특별히 한우로 골라왔으니, 소화도 잘되고 몸보신도 될 것이오”라는 대사를 전했다.

KBS 시사교양 <이웃집 찰스>는 낯선 한국 땅에서 뿌리를 내리고 살아가는 외국인들이 등장하는 프로그램. 한국에서 영춘권 도장을 차린 지 4년째인 호주인 리건이 도장 식구들과 한우고기로 회식하는 장면을 통해 한우고기로 오가는 한국의 정을 부각시켰다. 🐮

‘인체 유익한 단가 불포화지방산 증대 한우고기 생산기술 개발 연구’ 결과 발표

한우자조금이 영남대학교 최창본 교수팀에 위탁한 ‘인체 유익한 단가 불포화지방산 증대 한우고기 생산기술 개발 연구’ (연구기간 : 2014.2.24~2016.2.23 연구비 : 151백만 원) 보고서가 제출됐다.

이번 연구는 거세한우에 사료(미강, 사출대두 등) 급여 조절 기술과 비타민C 급여 조절 기술을 이용해, 한우고기 내 올레인산 등 단가불포화 지방산을 증가시킴으로써 맛 좋고, 건강에 유익한 한우고기 생산기술을 개발하고자 수행됐다. 연구 결과, 비육후기 거세한우에 90일 전후로 미강을 급여할 경우, 육량(대조구 대비 28.3% 개선) 및 육질(대조구 대비 35.2% 개선) 등급이 개선되며, 사출대두를 급여할 경우 한우고기의 맛(대조구 대비 20.5% 개선)이 개선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거세한우에 체중 1kg당 20mg의 비타민C를 비육전기부터 급여할

경우, 근내지방도와 육색, 지방색을 비롯한 육질등급을 개선하여, 비타민C 비용과 제비용을 공제한 순수익이 대조구에 비해 두당 293,127원 더 높았으며, 등심 내 단가불포화 지방산 비율이 높아지고, 등심 지방 융점을 현저하게 낮춰 한우고기의 맛과 건강에도 유리한 것으로 분석됐다.

결과 보고서에 대한 더욱 자세한 내용은 한우자조금관리위원회 홈페이지 조사연구자료실(70번)에서 확인할 수 있다. 

축산자조금연합, 내년에도 지속 운영한다

축산분야 9개 축종(한우, 한돈, 우유, 닭고기, 계란, 우유, 오리, 양봉, 사슴) 자조금은 2014년부터 연합을 결성해 축산물 및 축산업의 긍정적 이미지 제고 및 부정적 인식 개선을 위해 ‘축산업 및 축산물에 대한 소비자 인식 개선 사업’을 공동으로 진행하고 있다.

지난 6월 16일에는 축산자조금연합 임원(부회장, 감사) 선출과 지속 운영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축산자조금연합 위원장단회의가 진행됐다. 회의 결과, 부위원장에는 이승호 우유자조금위원장이, 감사는 김병은 오리자조금부위원장이 만장일치로 선출되었고, 2017년에도 축산자조금 연합을 지속 운영하기로 과반수 찬성에 따라 결정되었다.

농식품부 서재호 서기관은 “지속되는 부정적인 이슈에 개별적으로 대응하기보다는 공동으로 힘을 합해 대응하는 것이 좋겠다는 판단에 따라 자조금연합이 발족됐다”고 말했으며, 각 관계자들은 “환경과 축산업 관련 문제는 사전에 대비해야 한다는 점에서 축산자조금연합 지속에 찬성한다”는 의견을 말하는 등 축산자조금연합 지속 운영에 대해 긍정적인 의견을 표시했다. 

김영란법 논의 위해 모인 農(농)·畜(축)·漁(어)업

이완영 의원, 부정청탁금지법 시행 관련 토론회 개최

지난 6월 15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이완영 의원(새누리당, 경북 칠곡·성주·고령)은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부정청탁금지법 시행과 農(농)·畜(축)·漁(어)·중소기업 영향 : 김영란법 현실성 있는가?’ 토론회를 개최했다.

최근 국민권익위원회가 발표한 김영란법의 시행령 입법예고안에 대해 농축산민과 영세 자영업자들의 피해가 예상돼, 대책을 논의하고자 하는 자리가 마련된 것이다. 이날 토론회는 한국축산경제연구원 석희진 원장이 좌장을 맡았고, 건국대 김정주 명예교수(전 한국협동조합 학회장)가 주제발표를 했다.

이완영 의원은 “김영란법의 취지에 공감하지만, 사회·경제적 현실 그리고 국민 정서와 일부 맞지 않는 부분이 있기에 발효 전까지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토론회 개최 이유를 밝히며 “현 입법예고안대로 법이 시행된다면, 값싼 수입육 선물세트가 한우의 대체재로 자리 잡을 것이다. 양질의 상품을 생산하기 위해 노력했던 농·축산민에게 피해가 집중될 것이며, 내수경기 위축마저 우려 된다”고 말했다.

다음 순서로, 김정주 명예교수가 주제발표를 이어나갔다. “김영란법은 실패로 끝난 미국 케네디 정부의 쿠바 침공을 떠올리게 한다. 쿠바 침공에 반대의견을 제기하는 이가 간첩



취급을 당했듯, 김영란법에 토를 달았다가는 ‘부정부패를 그냥 놔두자는 것이냐’는 오해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김영란법을 끝내 시행하려면 국회의원 등도 대상에 다시 넣어야 한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국민의 공감을 얻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토론자로 참석한 전국한우협회 황엽 전무는 “헌법에도 농업과 농민을 보호하도록 되어 있듯, 김영란법으로 농가들이 피해를 입는 억울한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수산경제연구원 김현용 연구실장, 한국외식업중앙회 서울시협 의회 민상헌 회장, 한국화훼생산자협의회 최성환 회장, 전 한국임업후계자협의회 신용운 회장, 평창·영월·정선 축산농협 김영교 조합장, 한국인삼생산자협의회 박봉순 회장, 소상공인연합회 하종성 부회장, 농식품부 안용덕 축산정책과장, 국민권익위원회 허재우 청렴총괄과장의 열띤 토론이 진행됐다. 📌

한우컨설팅 연재 ④ 한우의 행동

한우의 사료 섭취, 성행동, 휴식 등 한우의 행동에 대해 이해하면 한우에 맞는 최적의 사육환경을 제공해 줄 수 있다. 한우의 행동은 크게 개체유지 행동, 사회적 행동, 이상 행동으로 나뉜다.

개체유지 행동

• 사료섭취

우사에 여러 마리의 소를 함께 사육할 경우, 힘이 센 소가 사료를 독차지해 약한 소는 사료를 제대로 먹지 못하게 된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목 잠금장치(스탄천) 등을 통해 적절한 조치를 해줘야 한다. 소들은 조사료를 입에 물고 머리를 흔들기 때문에 조사료를 사료조 밖으로 떨어뜨리기 쉽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사료조를 쇠팅으로 덮어버리기도 하는데, 이렇게 하면 조사료를 섭취하기 힘들고 에너지 낭비와 스트레스의 원인이 된다. 조사료를 먹기 좋게 절단하거나 먹을 만큼 조금씩 나누어 주는 것이 좋다. 사료 섭취 시간은 건조와 배합사료 등을 혼합해 주었을 때 4~6시간 정도이다.

• 탐색

소는 평소에 보지 못했던 사물이나 장소를 미루할 경우 우선 탐색한다. 즉 한우를 자울에 올리려고 하면, 잘 올라가지 않고 자울 주위의 냄새를 맡거나 앞발을 올렸다 다시 내리기도 한다. 탐색이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소를 강제로 자울에 올리려고 하면 소는 올라가지 않으려 발버둥 친다. 이럴 때는 자울판 위에 우사의 분뇨를 약간 뿌려 유도하면 된다.

• 물 섭취

소는 입을 물 속에 담그고 머리를 들지 않은 채 물을 빨아들인다. 소가 먹는 물의 적당한 온도는 10~15℃이다. 하루에 먹는 물의 양은 소 체중 100kg당 3~8kg이다.

• 휴식과 수면

소는 대부분 가만히 서 있거나 누워 휴식을 취한다. 이때 동시에 되새김을 하며, 되새김이 끝나면 깊은 수면에 빠지기도 한다.

• 배설

소는 배설할 때 꼬리를 들고 등을 구부린다. 배설은 하루 9~10회, 오는 8~10회 정도로, 일정한 장소가 아니라 아무 곳이나 배설한다.



• 성행동

암소가 발정하면 평상시보다 2~4배 정도 많이 돌아다니며, 사료 섭취량이 줄어들고, 외음부가 충혈돼 부어 있거나 점액이 흘러나온다. 또한 다 큰 소에 승가하려고 하며, 발정이 최성기에 도달하면 승기를 당해도 선 자세(스탠딩)로 버틴다. 소가 승가를 허용하면 수정 적기는 대략 12시간 이후를 권장한다.

어미소는 송아지를 분만한 후 송아지 몸을 핥아 이물질을 제거하고 건조시킨다. 후산은 대개 어미소가 먹는데, 목에 걸릴 우려가 있기 때문에 수거해 버리는 것이 좋다. 어미소가 송아지에게 초유를 먹이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는 송아지가 젖을 빨도록 2~3회 반복해주면 정상적으로 젖을 먹이게 된다.

• 되새김

되새김(반추)은 보통 사료를 섭취한 후 30분에서 1시간 후에 시작하며, 60~80%는 누운 자세로, 20~40%는 서서 또는 천천히 걸으면서 한다. 되새김은 일몰 직후에 가장 많이 하며, 하루에 6~9시간 정도에 걸쳐 25,000~30,000회 되새김한다.

사회적 행동

• 사회적 서열

소는 투쟁을 통해 서열을 정하고, 서열에 따라 사료 섭취와 휴식 등의 질서를 유지한다. 대부분의

싸움은 상대보다 힘이 약하다는 것을 인지한 소가 먼저 도망감으로써 그치게 된다.

나이가 든 소들을 한꺼번에 합사시키면 서로 서열을 가리기 위해 격렬한 싸움을 한다. 또한 새로운 소가 무리 속으로 들어오면 집단으로 공격해서 큰 상처를 입히기도 하므로 합사할 때는 신중을 기해야 한다.

이상 행동

• 허놀림

허를 입 밖으로 길게 내어 좌우로 돌리거나 허 끝을 둥글게 만드는 행동. 이런 행동을 줄이기 위해서는 농후사료 급여를 줄이고 거친 조사로 인 번짐 등을 절단하지 않고 급여하면 소들의 섭취시간과 반추시간이 증가해 허 놀림이 급격히 감소한다.

• 시설물 및 흙 놀기

텅 빈 사료통을 계속 핥거나 파이프를 계속 씹어대는 행동은 나트륨(Na)이 부족해서 발현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소금이나 광물질을 인위적으로 공급해주면 좋은 효과가 있다.

• 송아지의 구벽

송아지가 다른 송아지의 몸을 핥는 행동. 소털이 송아지 위 속으로 계속 들어가게 되며, 심한 경우 털뭉치가 소장의 입구를 막아 죽기도 한다.



2



3

1 조시로는 먹기 좋게 절단하거나 조금씩 나눠 줘야 한다

2 합사 시 싸움이 일어나는 것을 주의해야 한다

3 다른 송아지의 몸을 핥을 경우 소장이 막힐 위험이 있다

• 사모광

암소의 성욕이 비정상적으로 커지면 울부짖는 등 난폭해질 수 있다. 사모광 증상을 보이는 소들은 난소낭종에 걸린 소들이 대부분이다. 

“한우사육은 최고의 평생 직업”

전남 화순 동이네농장의 김기열, 김은주 부부

“도시에서 중장비 사업을 하다가 ‘평생 직업으로 한우사육이 최고’라는 권유를 받고 귀농한 지 6년째예요.
현재 전남 화순군 동북면에서 한우 250여두를 일관사육하고 있습니다.”

노후 걱정 없는 한우사육 선택

2010년, 중장비 사업을 운영 중이던 김기열 씨는 한우농장 공사를 진행하며 귀농을 결심하게 됐다. ‘한우사육이 노후 걱정 없이 할 수 있는 사업으로 최고’라며 사업을 권유받은 것이다. 김 씨는 곧바로 아내인 김은주 씨를 설득하고 아파트를 정리해, 빈 축사를 구입하고 한우 송아지 15마리(마리당 250만 원)와 경산우 11마리(마리당 470만 원)를 소 중개인을 통해 입식했다.

귀농할 때 너무 서두르지 말아야

김 씨 부부는 경험이 전혀 없었음에도 귀농을 서두르다 보니 시행착오를 많이 겪었다. 애써 기른 소가 임신이 되지 않아 고기소로 판매하기도 하고, 첫 수정을 너무 일찍 시켜 난산이 오기도 했다. 처음부터 많은 실패를 겪었던 김 씨 부부는 ‘한우를 처음 사육하는 이들이라면 사전에 충분히 교육을 받거나 농장에 취직해 경험을 쌓은 후 한우사육을 시작할 것’을 권한다.

소값 하락, 규모 확대의 기회로

한우사육을 시작한 다음 해에도 사정은 나아지지 않았다. 송아지값이 160만 원대로 크게 하락했다. 하지만 부부는 실망하지 않고 송아지를 더 구입했다. 소값이 125만 원까지 하락했을 때도 마찬가지였다. 그렇게 2011년에는 50여두, 2013년에는 100여두, 2015년에는 200여두, 2016년에는 250여두로 사육 규모를 점점 늘려 나갔다. 2013년에는 축사를 직접 시공해 비용을 절반으로 줄이기도 했다.

논농사 줄이고 한우사육에 전념

부부는 지난해까지 18ha(5만 평) 정도의 논농사를 병행해 왔다. 올해부터는 3ha(9천 평)로 대폭 줄이고 소 사육에 전념하고 있다. 이탈리아 라이그라스와 벼짚 등 조사료를 생산하기 위해서는 논농사가 필요하지만, 밭정 체크나 송아지 분만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것이 오히려 더 큰 손해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다.

한우개량에 친자 확인 필수

한우개량 시 친자 확인은 반드시 필요하다. 자칫 근친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동이네농장에서는 DNA검사를 통해 친자 확인을 해 불일치할 경우, 우선 도태 대상으로 삼는다.





한우 교육은 부부가 함께

김 씨 부부는 무엇보다 한우농가 교육이 중요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전국 각지에서 열리는 한우교육에는 열 일 제쳐놓고 부부가 함께 가서 교육을 받는다. '같은 것을 배워야 의견 충돌이 없기 때문'이란다. 또한 한 사람이 잘 이해하지 못했을 경우 서로 보완해 줄 수도 있다.

보증종모우 생산 목표

둥이네농장은 현재 한우후대검정 전문농가이지만, 앞으로 3년 후에는 한우육종농가로 신청할 예정이다. 육종농가로 선정되면 후보 종모우, 나이가 종모우를 생산하는 것이 목표다. 또한 최고의 한우 고급육 생산을 평가하는 한우능력평가대회에도 참가해 최고 영예의 대통령상까지 받겠다는 당찬 포부도 가지고 있다. 🐮



7월 축산관측

한우 1등급 도매가격 18,000~20,000원으로 전망

사육 전망

- 9월 한우 사육 마릿수 전년 대비 감소한 256만 마리로 전망
- 3월 한우 사육 마릿수는 전년 동월보다 3% 감소한 248만 마리, 9월 한우 사육 마릿수는 전년 동월 264만 마리보다 3% 감소한 256만 마리로 전망

공급 전망

- 7~8월 소고기 공급량 전년보다 감소 전망
- 도축은 사육 마릿수 감소로 1~5월 전년보다 19% 감소한 31만 2천 마리, 7~8월 도축은 전년 동기간 대비 15% 감소 전망
- 국내 가격 강세로 1~5월 쇠고기 수입량은 전년 동기간 대비 20.4% 증가한 13만 4천 톤

가격 전망

- 7월 이후 한우 도매가격 전년 대비 강세 전망
- 한우고기 공급 감소로 7월 한우 1등급 도매가격 전년 동월보다 상승한 kg당 18,000~20,000원으로 전망
- 산지 우시장 송아지 가격 강세로, 6월 22일 수송아지 평균 가격 410만원, 암송아지 평균 가격 325만원(6~7개월령)

- 수입 소고기, 국내 소고기 시장 점유율 확대 전망
- 한우 사육 농가 번식우 비중 늘려야



* 자료제공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6월 한우가격 및 출하동향]

* 6월 24일 기준

구분			평년 ('11~'15)	2015년		2016년		대비(%)	
				5월(A)	6월(B)	5월(C)	6월(D)	C/A	D/B
도축두수(두)			882,436	64,424	54,528	53,637	42,813	△16.7	△21.5
경매두수(두)			435,604	34,338	29,807	28,297	23,425	△17.6	△21.4
도매시장 경락가격 (원/kg)	평균		13,406	14,778	15,797	18,535	19,150	25.4	21.2
	거세우		14,569	15,719	16,850	19,995	20,638	27.2	22.5
	비거세우		10,624	11,805	12,027	15,525	15,109	31.5	25.6
가축시장 거래가격 (천 원/두)	암소		3,910	4,674	4,751	5,905	5,986	26.3	26.0
	송 아 지	암	1,511	2,208	2,410	3,163	3,247	43.3	34.7
		수	2,045	2,755	2,969	3,874	4,013	40.6	35.2
불고기(1등급/kg)			32,690	34,500	34,023	44,910	45,822	30.2	34.7
등심(1등급/kg)			61,957	64,570	65,244	73,810	75,955	14.3	16.4

출처: 축산물품질평가원 축산유통종합정보센터

* 전국경락가격: 전국 13개 도매시장 가격(원/지육kg), 결함제외 가격

[6월 한우농가 소득 추정]

* 6월 24일 기준

등급	도매가격 (원/kg)	가격(A) (천 원/600kg)	경영비(B) (천 원/600kg)	소득(A-B) (천 원/600kg)
1++	23,340	8,360	4,848	3,512
1+	21,528	7,711		2,863
1	19,935	7,141		2,293
2	17,604	6,306		1,458
3	14,426	5,167		319

* 경영비: 2015년 한우 비육우 경영비(천 원/600kg, 통계청

* 한우거세 도매가격 기준



* 일일 한우가격동향은 「한우키우기앱」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스마트폰 앱 다운로드방법 **한우키우기**를 play스토어에서 무료로 다운받아 사용해 보세요.
(아이폰 기종은 지원하지 않습니다.)



정책소식

- 농식품부, '먹방' BJ 데리고 '한우' 팸투어…
아프리카TV 생중계
6월2일 파이낸셜뉴스
- 한우협회 “농축협 위탁사육·생육장 비육 철폐”
6월3일 한국농어민신문
- 자조금 쓰일 곳 많은데…정부 지원 축소 움직임
6월3일 축산신문
- 식약처 '축산물위생관리법 개정' 논란
6월3일 농민신문
- 농협, 소 근출혈 단계별 피해 대책·농가 지원 방안 마련한다
6월7일 한국농어민신문
- 전국 정육가격 조사, 공급가능한 '한우 최저가격' 찾는다
6월14일 한국농어민신문
- 축산자조금연합과 대형유통점 'MOU 체결'
6월28일 파이낸셜뉴스

지역소식

- 한우가격 상승에도 못 웃는 전남 축산농가
6월1일 광남일보
- 제천시, 농축산물 최저가격 결정… 한우 428만 원
6월12일 뉴시스
- 경북도축산기술연구소, 한우개량 30억 지원 받는다
6월14일 한국농어민신문
- 제주도 내 한우 경매시장 수송아지 536만 원…
최고가 경신
6월16일 일요신문
- 고성군, 한우 육성 한목소리 “으뜸한우 인증제 실시”
6월21일 포커스뉴스
- 영주한우 명품화 추진단 “한우 메카 만들겠다”
6월22일 뉴시스
- 보들걸 제주 한우, 홍콩 수출 1t 돌파
6월22일 뉴시스
- 임실군, 한우 배내기사업 본격 추진
6월26일 뉴스메이커



농가소식

- 지난해 한우 결함육 발생 최다
6월 3일 축산신문
- 축산농가 소득도 부채도 가장 많아
6월 3일 축산신문
- 시행지침도 없이... '브루셀라 음성농장제도' 있으나 마나
6월 3일 한국농어민신문
- 송아지가격 상승... 지난해 한우비육우 생산비 늘었다
6월 3일 한국농어민신문
- “마블링 왜곡보도” 한우농가 JTBC 항의 방문
6월 20일 농민신문
- 귀표·부착비 예산 삭감 추진... 농가 반발
6월 24일 축산신문

사육정보

- 대한민국 축산의 현재, 네이버 지식백과에서 만난다
6월 1일 라이브뉴스
- 한우자조금, 맛도 좋고 인체 유익한한우 사육기술 개발
6월 2일 부산일보
- “백신 의존 대신 가축 사양관리로 면역력 높여야”
6월 7일 한국농어민신문
- “한우 비타민C 급여하면 건강기능성·맛 향상”
6월 10일 한국농어민신문
- 축산과학원 ‘축산 실용기술모음’ 발간
6월 10일 축산과학원
- 농진청 “산지생태축산 한우, 사료비 46% 절감”
6월 16일 뉴시스
- ‘대관령목장’ 전국으로 확대...산지축산 본격화
6월 16일 뉴스1
- 한국형 축산 스마트팜으로 사육환경 개선한다
6월 29일 라이브뉴스



사진제공 : 동이네농장 김기열, 김은주 대표(전남 화순군 동북면 구암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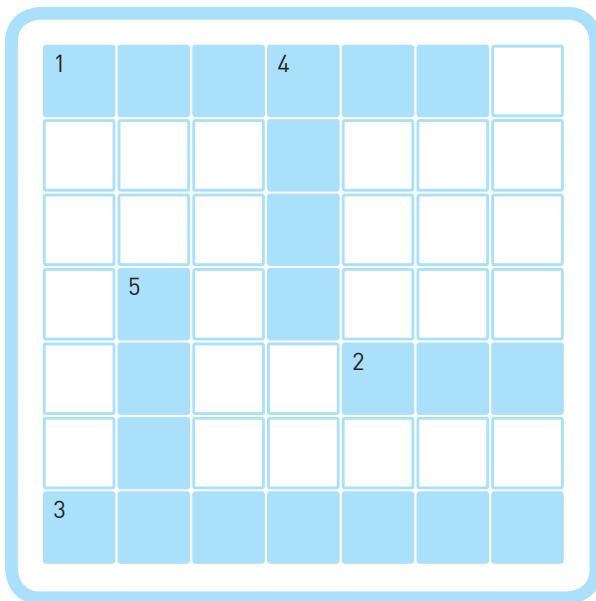
평화로운 점심시간

일렬로 늘어선 소들이 정신없이 사료를 먹는 중. 나란히 보이는 황갈색 엉덩이가 귀엽다. 다른 사람이 보기에는 똑같아 보이는 뒷모습이지만 주인에게는 각양각색이라는데... 소들은 이렇게 섭취한 사료를 약 30,000회의 되새김질을 통해 소화시키고 배설한다는 점! 🐮

함께하는 한우자조금

한우자조금위원회는 농가와 소비자가 함께 웃을 수 있는 한우 산업을 만들어가고자 합니다. 소식지 <한우자조금>을 통해 한우농가 여러분의 말씀에 귀 기울이며 한 걸음씩 나아가겠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가로세로 낱말퀴즈



낱말 퀴즈의 정답을 보내주신 분들께는 추첨을 통해 한우 자조금에서 마련한 **5만 원 상당의 농산물 상품권**을 드립니다. <한우자조금>에게 전하고 싶은 말씀도 함께 담아주세요.

가로 열쇠

1. '도심에서 즐기는 캠핑'을 주제로, 경기도 양평에서 진행한 '한우 00 0000'.
2. 고기 사이에 들어있는 지방질로, 육류를 연하게 하고 육즙을 늘리는 지방의 분포.
3. 9개 축산자조금이 주축이 되어 축산업과 축산식품의 협업을 위해 만든 연합.

세로 열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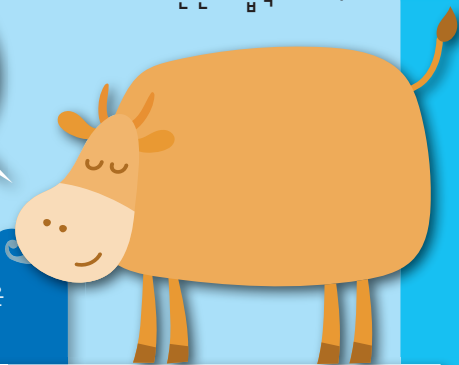
4. 두껍게 자른 덩어리 고기를 구워낸 요리. 기호에 따라 굵은 정도를 달리해 요리한다.
5. 소고기에 많이 함유된 불포화지방산. 감칠맛을 내며 몸에 좋은 HDL 콜레스테롤을 증가시킨다.

※ 응모하시는분의 성함, 주소, 연락처도 반드시 기재바랍니다.

6월호 낱말퀴즈 사은품 당첨자

박나리 (5780) 이은미 (2482)
박수진 (2157) 이춘임 (7498)

보내주신 많은 성원과 관심 감사합니다.



애독자 퀴즈의 정답은 한우자조금 홈페이지(<http://www.hanwooboard.or.kr>) 내 소식지 이벤트 코너 혹은 스마트폰으로 QR 코드를 찍어 접속하신 페이지에서 응모 가능합니다.

아시아의 젊은이들이
나에게 빠졌습니다

이탈리안 셰프가
나만 고집합니다

해외 정상들이
나와 함께 돌아갑니다

나는
대한민국 한우입니다



2016년 한우홍보대사
지 진 희

세계인이 감탄한 한우 또 하나의 한류입니다



오천년 한우농가가 정성으로 키운 한우의 맛과 영양
이제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인이 인정하고 감탄합니다

본 소식지는 한우자조금으로 제작되었습니다